

스타일이 있는 가든 디자인 제안⑥

플랜트를 활용한 실내 정원

집은 내키는 대로 쉽게 바꿀 수 없지만, 정원은 계절에 따라 기분에 따라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 즐길 수 있다. 꽃을 기다리는 설렘을 주고,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달래주기도 하는 행복한 정원. 가든 디자이너 강혜주 씨가 제안하는 정원 디자인 속에서 나만의 꿈을 찾아보자. 정리 이세정



정원을 꾸미기 전 모습. 넓은 로비 한켠으로 천장이 높고 창이 커 그나마 햇살이 좋은 장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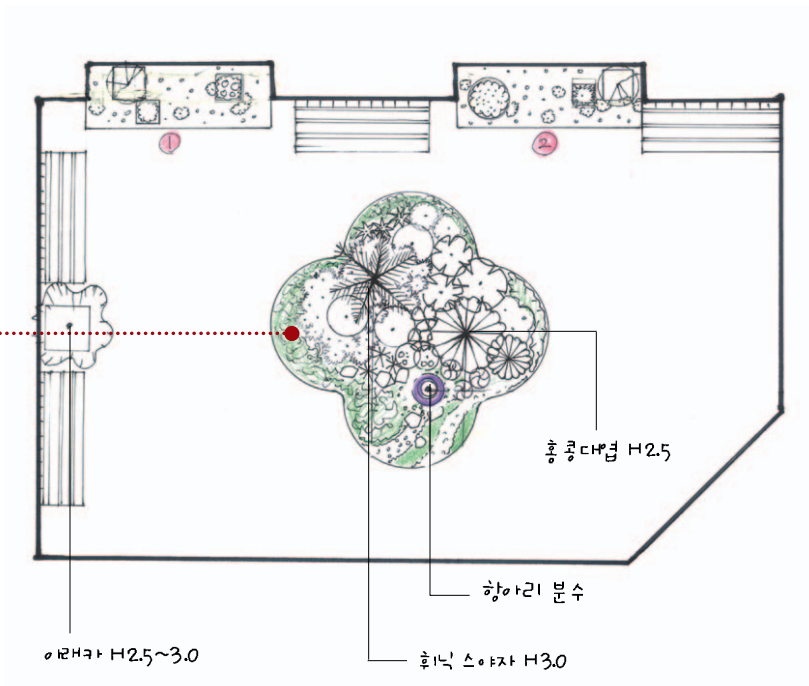
실내 정원은 초록잎과 꽃을 보기 힘든 겨울철, 생활의 청량감을 선사하는 공간이다. 일반 가정에서는 베란다나 실내 중정 등에 적용되고, 상업 건물의 로비나 사무실에도 흔히 볼 수 있다. 겨울철 실내에 식물을 두고 지내는 것은 환기가 어려운 계절,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하고 천연기습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이번회는 중랑구청 건물의 로비와 벽면에 실내 정원을 디자인한 사례다. 원형 테이블 몇 개만 단출하게 있던 곳을 주민들이 식물을 즐기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쉼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다.

우선 중랑구의 상징물인 배꽃의 이미지를 떠올렸다. 배꽃잎과 꽃술은 찬란히 피어나는 꿈을 상징하며 살기 좋은 중랑구를 뜻하고, 배꽃 아래 천(川)자는 맑고 푸르게 중랑천을 가꾸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한다. 여기서 착안해 배꽃 모양의 화단을 만들고 향아리 분수로 샘솟는 물의 이미지로 생명과 깨끗함을 녹여내고자 했다. 중랑천의 이미지는 흰 조약돌과 식재로 일정한 곡선을 만들어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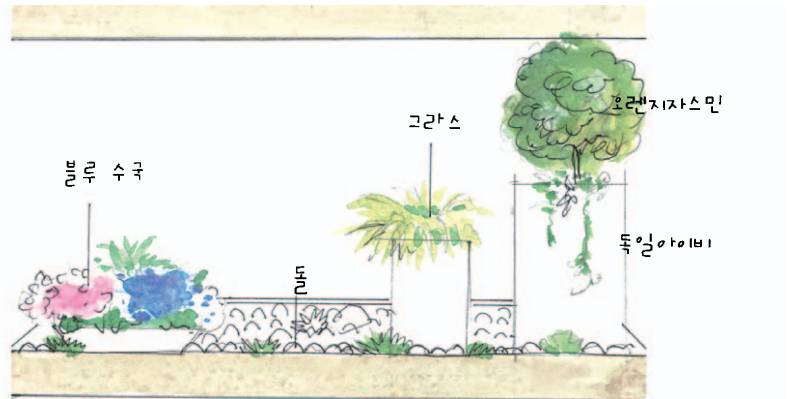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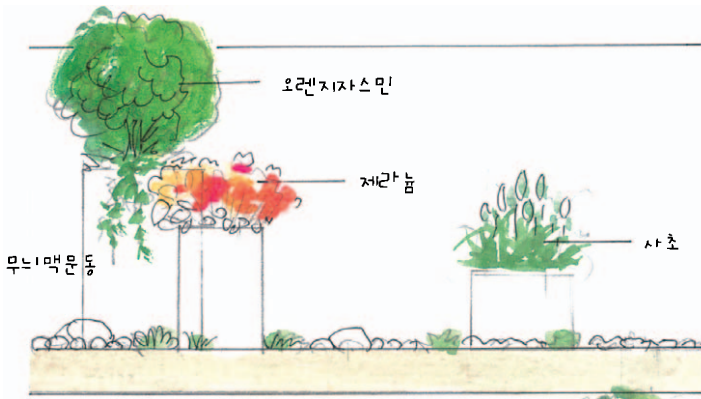
관엽류로 키가 큰 야자수를 메인으로 두고, 관리가 쉽도록 보는 식물 위주로 식재했다. 여기에 털란, 체리, 에피, 호접란을 넣어 컬러감을 주었다.

창가와 면한 벽면 플랜트는 모던한 대리석 화기를 이용, 계절별 초화류로 화려함을 더했다. 아웃도어용 벤치도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해, 마치 야외 정원에 나와 앉은 편안함을 주고자 했다. 화분에서 나오는 물은 더 큰 화기를 아래 받쳐 물받이로 활용하면 누구나 관리가 쉬운, 깔끔한 정원을 만들 수 있다.



▲철재와 목재를 활용해 배꽃 모양의 플랜트를 만든다. 배수판과 인공 토양 포설 단계에 수분을 체크하는 관을 설치하거나 나무를 꽃아보는 방법으로 수분을 조절한다. 휘닉스 아자로 높은 공간에 키를 세우고 홍콩대엽으로 풍성한 볼륨을 준다.

창과 면한 벽면에 플랜트 정원



▲ 아래가 아자 화분 곁에 야외용 벤치를 두어 정원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공간을 연출했다. 벤치에서 바라보는 창가 플랜트에는 컬러와 모양이 다른 대리석 화기에 무늬 맥문동, 오렌지 자스민, 제라늄을 심었다. 플랜트는 화분의 물받이 용도이면서 이담하고 예쁜 화단이 된다.



▲ 블루 수국, 몽지초, 오렌지자스민과 독일 아이비를 드리웠다. 아래 플랜트 화단에는 사초와 미니 카네이션을 심어 아기자기하다.



정원 관리를 위한 TIP

1. 화단의 배수는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플랜트 화단은 더욱 물관리가 중요하다. 배수를 확인할 수 있는 관을 매립하거나 나무젓가락을 깊이 꽂아 배수판 아래 물고임을 확인한다. 수분 측정기를 쓰는 곳도 있지만, 무엇보다 정해진 사람을 두고 물관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2. 향아리 분수의 경우, 고인물이 보이지 않을 때는 늘 수중 모터가 물에 잠겨있을 수 있도록 물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
3. 벽면과 면한 플랜트 화단의 화분은 제철 꽃으로 갈아줘 늘 화사함을 유지하면 좋다. 특히 1년에 여러번 꽃이 피는 제라늄은 알비로나 거름을 줘 관리하고, 수국은 물을 자주 주면 된다. 플랜트 바닥에 포트채 심어 작은 꽃을 감상하는 것도 방법.

항아리 분수와 내천자의 상징물



◀ 항아리 분수에서 솟는 물은 호박돌과 조약돌 사이로 흘러들어 고인 물이 보이지 않는다. 대국도, 보스톤고사리, 호접란, 에피덴드론, 익소리가 앞쪽으로 보인다.



▲ 연크로톤, 채리, 팔손이, 소철, 틸란을 원형 4개마다 다른 느낌으로 식재하였다. 이 중 산호수, 스파트필름, 채리, 크로톤, 안시리움, 홍콩대엽으로 꽃이 지고 나면 앞을 보는 식물이다.



▲ 중랑구청의 상징인 배꽃 화단에 항아리 분수에서 나오는 물의 이미지를 흰 조약돌과 아침이슬, 세덤 식재로 패턴화했다.



■ 가든디자이너 · 보타닉아티스트 강혜주

서울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화가로 활동하던 중, 타사와 탐 스투어트 스미스의 정원에 마음을 빼앗겨 본격적인 정원 디자이너의 길로 들어섰다. 꽃을 주제로 한 4번의 개인전을 열고, 주택과 상업공간 정원 뿐 아니라 공공장소 설치 디렉팅까지 다방면으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대표작품으로는 '걸리버가 머무는 자리', '라면정원', '마더스정원' 등이 있고, 올해 핵안보정상회의 포토월, 대구꽃박람회 주제관 등을 직접 디자인했다. 현재 가든디자이너 홍미자 씨와 함께 와일드가든디자인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031-966-5581 wildgarden3@naver.com